

“생생한 불교자료 찾아 6년간 방방곡곡 누벼”

스스로 '근현대불교 개척자'라고 부르며 고된 학문의 길을 걸어온 김광식 씨(대학사상연구원 연구부장)가 근현대불교사 3부작 <한국근대불교사 연구>, <한국근대불교의 현실인식>, <근현대 불교의 재조명>(이상 민족사)을 완간했다. 40여 편의 논문으로 구성된 이 세권은 그가 지난 93년부터 6년여동안 발로 쓴 책이다. 1910~1962년까지를 정리한 이 책들에서 가장 먼저 드러나는 사실은 아직도 미답지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그가 책을 적은 것은 찾아야 하고, 문제 제기에 가깝다. 그래서 그는 근현대불교사 3부작을 기초작업밖에 안된다고 말한다.

“근현대불교사 연구를 하게된 이유는,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 연구소 연구원으로 근무할 당시 근현대불교사와 관련된 자료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답답했다. 그래서 음성 스캔을 시작으로 관련 자료를 모으기 시작했다.’

“근현대불교사를 연구하는데 주의할 점이 있다면, ‘관점이다. 특히 근현대불교사는 성찰(반성)과 발전(애절)적 시각이 병행되어야 한다. 이것이 부족하면 객관적 서술을 할 수 없다. 특히 근현대 불교사는 부끄러운 사건들이 많기 때문에 애정을 갖지 않으면 치부될 우려가 있다. 게다가 우리가 근현대 불교사를 연구하는 목적이 불교 발전이라면 여법하게 소화할 수 있는 남다른 애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책과 삶**
‘한국근대불교사연구’ 펴낸 김 광 식

“연구활동에 있어 가장 힘들었던 점은, ‘무관심이다. 학자의 보람은 논문과 책을 발표했을 때 반응을 듣는 것이다. 그런데 이 분야는 아무런 반응이 없다. 이 분야를 학문의 한 분야로 정착시키기 위해 앞으로 철저한 연구와 설득력 있는 해석에 중점을 둘 생각이다.’

“앞으로의 연구 방향은, ‘개항부터 1910년까지와 1966년부터 1970년까지의 불교사를 연구할 생각이다. 이 정도만 정리해도 근현대불교사 연구의 뼈대가 정리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김광식 씨는 불교학을 전공한 학자는 아니지만 근현대불교를 화두로 삼아 일가를 이루었다. 지금은 그가 펴낸 책들이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지 못하지만, 이 분야를 연구하는 학자들에게 없어서는 안될 스승이다.

김중근 기자

헤세가 동양에서 배운 진리

‘헤르만 헤세와 동양의 지혜’ 이인용 지음

서양의 정신세계를 넘나들었던 헤르만 헤세(1877~1962). 그는 무엇 때문에 동양의 정신세계로 발을 들여놓았을까. (헤르만 헤세와 동양의 지혜)(두레)는 독일의 작가 헤르만 헤세의 작품을 동양 정신의 관점에서 분석한 글이다. 이를 통해 그가 동양의 지혜에 얼마나 심취했고, 또 얼마나 다양하고 깊은 지식을 습득했는지를 보여준다.

글쓴이 이인용 교수(한국의국어대)는 동양의 정신세계에 깊이 젖어든 헤세 작품의 소재와 모티브, 인물의 출신과 성격, 문학적정신과 사상에서 동양적 요소들을 수용하고 있다고 말한다. 중국 지혜의 고전들을 인용하는가 하면, 때로는



헤르만 헤세의 동양의 지혜

동양사상을 자기 나름대로 소화하여 작품화했다는 것이다.

그의 작품에는 불교의 주요사상인 윤회, 번뇌, 열반 등을 모티브로 한 내용이 자주 나온다. 이를 토대로 불교의 관점에서 그의 작품을 살펴보자.

환생 등 작품 모티브 분석 불교=문학의 뿌리 밝혀

번뇌에 관한 교훈이 문학적으로 자주 표현되는데 인도의 시(詩)를 책으로 엮은 <신타르타>가 대표적이다. 고타마 장에서 헤세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받아들여 자기 방식대로 문학화 하고 있다. <신타르타> 이외에도 헤세의 작품 인물들은 대부분 번뇌하는 사람들이다. <수레바퀴 밑에서>의 한스 기벤라트와 헤르만 하일러, <유년시절의 영혼>의 일인칭 인물, <클라인 바그너>의 프리드리히 클라인, <데미안>의 에밀 싱클레어 등 수많은 인물들이 그렇다. 이들은 자신의 운명을 긍정하며 그에 순응하는 데,



노년의 헤세와 두 아들.

이는 번뇌로부터 벗어남을 의미한다. <차라투스트라의 귀환>에서 번뇌란 자신의 운명을 변화시키지 않으려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헤세는 ‘삶이 곧 번뇌(苦)임’을 문학 작품을 통해 자연스럽게 표현하고 있다.

불서 읽기를 즐겼던 헤세는 1910년에 발표한 소설 <게르트루트>에서 윤회사상을 기동 소재로 쓰고 있다. 또 <크놀프>의 주인공인 방랑자의 인생사에서도 모든 피조물의 환생과 관련된 죽음의 필연성에 대한 동양적 사상이 상징적으로 제시되고 있고, <갯가지의 죽음>이란 시에는 삶과 죽음이 라는 수많은 차원에서의 동양적

환생에 대한 사상이 더욱 분명하게 표현돼 있다. 이러한 헤세의 불교적 윤회사상은 크레히트와 영혼이 인간의 형상으로 나타난 모습에 관한 기록들, 즉 <유리알의 윤회>에 서술된 ‘이력서들’이라고 이름한 다섯 개의 기록적인 작품에서 가장 분명히 알 수 있다. 이 밖에도 그의 작품들 속에는 곳곳에 불교의 사상이 흐르고 있다.

헤세는 진정한 ‘나’를 찾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을 위해 글을 썼다고 한다. 이는 헤세의 문학세계가 동양사상 특히 불교 사상이서 발원 하였음을 직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다. 값 1만5천원, 김중근 기자 (gamja@buddhopia.com)

이세열 ‘직지 디제라티’

<백운화상초록불조지심체요절>이라는 긴 이름을 가진 <직지>, 교과서에 세계 최고의 금속활자본으로 나와있는 이 책이 세상에 알려진 것은 최근의 일이다. 1970년대 초 유네스코가 주최하는 ‘책의 역사’ 전시회에 출품되면서부터다. 수백 권을 찍었지만 하권 한 권만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소장중이다. 여러 차례 프랑스에 반환을 요구했지만

직지가 주는 정보화 메시지



만 아직 돌려 받지 못하고 있다. 직지 연구가로 알려진 이세열 씨가 1996년부터 기고했던 칼럼·기고·투고들과 1998년부터 인터넷 사이트에 올렸던 것을 정리해 <직지 디제라티>(도서출판 직지)로 엮은 이유는 간단하다. 그 동안 번역서나 해설서, CD-ROM, 인터넷 사이트, 다큐멘터리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직지를 알리고자 노력했으나 아직도 일반인들이 <직지>에 대해 잘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글쓴이는 우선 <직지>가 불경이 아닌 데도 <직지심경>이라고 잘못 알려진 사실을 밝힌다. 프랑스에 있는 원본이 누군가 ‘직지심경’이라고 쓴 붓글씨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디지털(Digital)과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는 지식인이라는 의미인 리터라티(Literati)의 합성어인 디제라티(Digerati)란 책이름에서 알 수 있듯 이 책은 과거에 머물지 않는다. 금속활자로 대표되는 인쇄술의 발달이 지식과 정보를 대중에게 확산시켜 민주주의, 산업혁명, 종교개혁 등 현대문명의 초석을 놓았던 것처럼 직지의 창의력을 이어받아 정보혁명시대를 열어가자는 것이 이 책의 메시지다. 값 8천원, 권형진 기자(jinny@buddhopia.com)

묘곳과 진오귀곳의 대가, 무속인 정정희의 新무당 이야기

내가 울어야 너희가 편하지

신국판/값 7,500원

무속인 정정희는 누구인가?

명성 황후를 몸주신으로 모시는 그는 세간에 인비 보살로 널리 알려져 있다. 그는 얼마 전, 삶이 생전 불심이 지극했던 명성 황후가 관세음보살로 해탈한 것을 신공받기도 하였다. 그는 실제로 정신이 이루어져 행만에서는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묘곳과 진오귀곳에 특히 강하다. 무속인의 역할에 자부심을 갖는 그는 항상 남의 고통을 제 고통으로 삼아 진정한 무당이라고 말한다. 무당이 당신을 위해 눈을 흘리고 고통스러워 할 때 당신은 평온하고 행복해진다...

최근 정 회장(정주영 전 명예 회장)이 풍수대가들이 천하명당이라고 평가한 청운동 집을 떠나 가회동으로 이사한 것은 무속인 정정희 씨의 권유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스포츠투데이』 2000. 7. 28

정정희 씨가 무너져서 치유 능력이 각별한 것은 그의 기가 유별나게 강하기 때문이다. 특히 혼불을 볼 수 있다는 것도 그녀의 기가 강하다는 증거이다. 지난 5월에 대한 항공의 여객기 승무원 세 사람이 무리리를 하러 왔다. 7월에 비행기 사고가 크게 일어날 것이니 직장을 그만 두고 시립가는 게 좋겠다는 징계가 나왔다. 그 중 한 사람인 김 씨는 결혼을 하기 위해 직장을 그만 두어 살았고 두 사람은 곧 비행기 사고로 참사를 당했다고 한다. 『서정범의 '무녀벌곡' 중에서

“산사에서 만난 스님들과의 소중한 인연 이야기”

시인 현주하 자전 산문집

절에서 만난 사람들

성철, 고암, 일타, 범흥 큰스님.....

명정한 깨달음과 강렬한 느낌을 줬던 범정 스님, 많은 이들을 품었다 미련도 없이 길을 내주는 심성을 일깨워준 구산 큰스님,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스스로를 채찍질하는 모습을 보여준 각문 스님..... 불기에서 널리 그 덕을 칭송받는 많은 스님들과의 만남과 그들의 인간적이며 솔직한 이야기.

담백하고 잔잔한 이야기들을 읽다가 보면 한 폭의 수묵화 같은 맛과 아름다움을 느끼게 된다. -소설가 허일지

소중한 스님들과의 인연들이 훈훈하게, 때로는 몽글하게 마음에 다가온다. -소설가 임철우

신국판/값 7,500원

